

인사말씀

# 위성시대는 우리가 先導한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풍요를 예감하게 하는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신위성·우주산업 연구회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발사된 무궁화 위성 1호 및 2호가 정상궤도에 진입하여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어 명실공히 우리 나라도 위성을 소유한 기술선진국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또한 국내 기술로 개발된 디지털 이동전화 방식인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어 이동통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쾌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통신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개발과 아울러 국내에서는 전파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 핵심기술개발에 필요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계질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국은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나라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정보통신시장은 내년을 기점으로 하여 완전히 개방하게 되어 대다수의 기업들이 커다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냉혹한 국제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 기술국으로 진입하여 기술우위의 위치를 선점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 종사자들에 부여된 책무는 막중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산업체, 학계, 관계기관 등 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정보의 교류와 협력체계의 확보 등 발전 방안에 관한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쟁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통신·방송위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우주과학 및 관련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족된 우리 연구회는 산·학·연의 뜻을 모아 우리 나라 위성 및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효율적인 방향 제시는 물론 정책 관련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회원 상호간의 기술정보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지구촌 정보화 시대가 예상을 초월하여 급격히 다가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위성개발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여야 함은 물론 기술인력의 육성과 차세대 위성사업에 대한 방향 정립 또한 우리시대의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과학기술시대의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으로 더욱 심기 일전하여 위성시대를 선도하는 개척자적인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부회장 김정기